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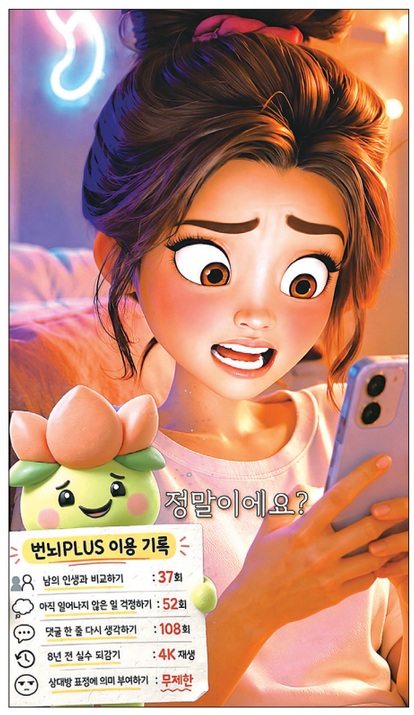
노광현 '마음이 머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배려, 나눔, 명상'의 가치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담아냈습니다. 작은 행동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초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채빈 '초심이와 처염상정'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 즉 '처염상정'의 의미를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청정함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지켜가는 삶의 자세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윤영 '번뇌PLUS, 해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걱정이 떠오르는 것 자체보다,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과의 비교처럼 반복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갈지, 잠시 바라보고 흘려보낼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형준 '화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받은 화를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작은 선택도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보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곧 '일상의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초심이와 함께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김태균 '번뇌가 사라지는 90초 힐링'

하루 동안 쌓인 어지러운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맑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가꾸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히 지나온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최대한 '초심이와 함께 빛을 켜요'

일상 속 불교의 가치를 초심이가 등을 전달하면서 알리는 영상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초심이가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빛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상자 소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양채원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숏츠 영상 통해 자신 돌아봤으면"

"영상을 본 분들이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 AI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채원 씨는 작품 제작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광고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 1학년 양 씨는 중학생 때부터 영상 제작을 배워왔다. 기획부터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까지 홀로 맡은 양 씨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는 하루 정도가 걸렸지만,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기획하는 데 일주일 이상을 들였다"며 "불교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공부한 시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불자는 아니지만 평소 사찰의 차분한 분위기와 불교의 좋은 말씀에 관심을 가져온 양 씨. 그는 "작품을 준비하며 불교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신지호 씨는 영상·애니메이션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 3학년으로 공모전 정보 사이트에서 소식을 접한 뒤 응모했다.

신 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며 불교를 많이 알게 됐고, 초심이를 활용한 AI 영상 제작 실력도 늘었다"면서 "상을 받지 않아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작품에서 AI 특유의 느낌을 줄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밝힌 신 씨는 "다른 작품과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2D 캐릭터에 직접 촬영한 실사 배경을 결합했다"며 "젊은 세대가 AI 영상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줄이려고 일부러 찌글찌글한 느낌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종교는 없지만 평소 불교박람회에 관심을 갖고 산을 찾을 때면 사찰에도 들렀다는 그는 "앞으로도 영상과 관련된 일을 이어가고 싶다"며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신지호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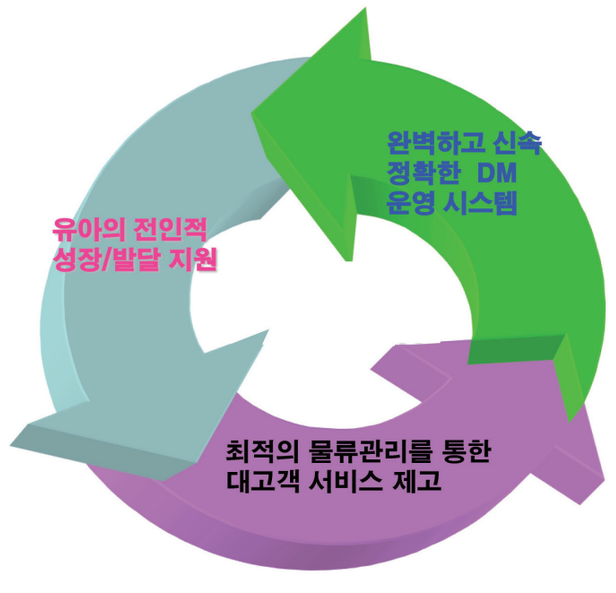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5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